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	
		배포일자	2023년 5월 2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시립박물관	담당자	•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☎440-6731 • 학예연구사 우석훈 ☎440-6735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이 낳은 서예가, ‘검여 유희강’ 작품 인천 온다
- 인천시립박물관, 성균관대학교 박물관과 ‘검여’ 유물 관련 업무협약 체결 -

인천이 낳은 서예가 ‘검여 유희강’ 작품을 인천에서 상시 볼 수 있게 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5월 2일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과 김대식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검여 유희강’ 관련 유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중의 하나인 검여 유희강(1911 ~ 1976)은 인천시립박물관의 제2대 관장(1954 ~ 1961)을 역임했다.

재임 중 『향토인천의 안내』 책자를 발행하고 개관 10주년 기념전 「개인 소장품 전시회」를 개최하는 등 전쟁 이후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지역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했다.

검여 유희강 관련 자료 1,000여 점은 지난 2019년 성균관대학교에 전부 기증됐으나,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상시적 선보일 수 있게 됐다.

협약에 따라 인천시립박물관은 상설 전시 3층 고미술실에 ‘검여 진열장’을 마련해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검여의 작품과 생전 사용하던 인장, 벼루, 붓 등의 소품들을 상설로 전시할 예정이다.

아울러 양 기관은 2027년 인천뮤지엄파크 이전 후 검여와 관련된 전시 코너를 따로 꾸며 다양한 작품들을 시민에게 공개하는데 뜻을 모았다.

김대식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관장은 “검여 유희강은 인천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립박물관 제2대 관장을 역임하는 등 인천과 관계 깊은 인물로, 이번 협약이 검여의 다양한 작품을 많은 인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“인천 출신으로 한국 서예의 한 획을 그은 검여 선생의 자료가 인천시립박물관 상설 전시로 인천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고, 업무협약을 흔쾌히 제안해 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감사를 표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양 기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 검여 선생 자료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(15시)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